

교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칼빈(John Calvin)의 이해
- 『기독교강요』 4권을 중심으로 -

指導 최 태 영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11월 26일

영 남 신 학 대 학 교 신 학 대 학 원

신 학 과 조 직 신 학 전 공

오 성 협

오성협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主審 _____

副審 _____

副審 _____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년 11월

목 차

| | |
|-----------------------------------|----|
| I. 서론 | 1 |
| A. 연구 동기와 목적 | 1 |
| B. 연구 방법 및 범위 | 3 |
| II. 교회라는 말의 의미 | 4 |
| A.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찾은 에클레시아의 의미 | 5 |
| B. 성서에서 찾은 에클레시아의 의미 | 7 |
| III. 칼빈의 생애와 교회론의 저술배경 | 12 |
| A. 칼빈의 생애 | 12 |
| B. 교회론의 저술배경 | 18 |
| IV. 교회의 본질 | 21 |
| A.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 22 |
| B.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24 |
| C.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 27 |
| D.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 31 |
| V. 교회의 기능 | 34 |
| A. 말씀선포 | 35 |

| | |
|--------------|----|
| B. 성례전 | 37 |
| 1. 세례 | 39 |
| 2. 성찬 | 42 |
| C. 권징 | 44 |
| | |
| VI. 결론 | 48 |
| | |
| 참고문헌 | 51 |

I. 서론

A. 연구 동기와 목적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삼하 7:5)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다(대상 22:8).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에게 한 아들이 나리니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대상 22:9,10). 그 예언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는 평안해졌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사백 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사년시브월 곧 이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왕상 6:1)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걸린 기간은 7년이였다(왕상 6:38).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

젓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 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왕상 8:27-30)

하나님께서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왔다.

지금의 교회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일들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여 왔다.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세워졌다. 가정교회도 있었고 지하교회도 있었다.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영혼들이 성화 되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공급해주었다. 지금도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으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많이 애쓰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역사가 흐르면서 그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지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세상으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

회에 있더라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모이지를 않고 이웃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들이다. 교회 안에 뜨거운 복음의 역사도 줄어들고 기도 소리도 줄어들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그렇게 되어서 가는가? 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 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게 된다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하여 알아보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교회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특별히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4권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B. 연구 방법 및 범위

교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은 수 천년동안 쓰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논하기 전에 먼저 교회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와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

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기독교강요를 쓴 칼빈의 생애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가 많은 분량을 할애한 교회론의 저작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스 쾨링은 그가 쓴 교회론에서 교회라는 개념은 각 시대의 교회 형태에 의존한다고 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교회상이 있으며 역사상 특정한 교회의 생활과 형식이 있고 역사상 특정한 신학자들이 되돌아보거나 내다보는 교회관이 있다고 했다. 반면에 변화무쌍한 교회상의 온갖 정신사적, 교회사적, 신학사적 조류(潮流)와 역조(逆潮)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도 확실히 있는데 이것은 “본질”이라고 했다.¹⁾

이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하여 기독교강요 4권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또한 그러한 본질적인 개념에 의거한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교회라는 말의 의미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며 그와는 다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회(敎會)라는 말의 의미는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

1) 한스 쾨링, 『교회론』, 이홍근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1994), p. 17.

들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회(敎會)”라는 말의 한자어를 풀이하면 “가르치는 모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지적인 모임이요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성인교육 단체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 결과 평신도들을 방관자와 추종자 계급으로 분류했으며 교회의 성장과 교회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방해해 왔다.²⁾

교회를 영어로 “church” 독일어로 “kirche” 라고 하는데 이는 비잔틴 희랍어(the Byzantine Greek) ”퀴리아케“에서 왔으며 이 용어의 의미는 ”주께 속한다“이다.³⁾

다른 유럽 언어(프랑스, 스페인, 이태리등)들은 희랍어 “에클레시아(εκκλησια)”에서 나온 교회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⁴⁾는 (εκκλησια)라는 말을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클레시아(εκκλησια)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교회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A.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찾은 에클레시아의 의미

에클레시아(εκκλησια)라는 말은 “부르다”(to call)를 뜻하는 칼레오(καλεω)에서 유래한 에크-칼레오(εκ-καλεω)에서 파생되었는데 에크는 “...

2) Michael Griffiths, *Cinderella with Amnesia*, 권영석 역,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2), p. 15.

3) David Watson, 오광만 역, 『교회의 진정한 표상』 (서울: 여수론, 1991), p. 86.

4) 마태복음 16:18, 마태복음 18:17.

으로부터'라는 전치사이며 칼레오는 "부르다", "소환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어원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⁵⁾

고전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일찍이 헤로도투스(Herodotus), 투키디데스(Thucydides), 크세노폰(Xenophon), 플라톤(Plato) 등 약 기원전 5세기의 저술에서부터 발견되는데⁶⁾ 그것은 폴리스(polis: 도시)의 시민들의 집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집회는 빈번하게 소집되었는데 아테네(Athens)의 경우에는 일년에 30-40회 정도 소집되었다.⁷⁾ 그러한 에클레시아는 어떤 특정한 안건들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 혹은 집회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이러한 의미의 용례를 사도행전 19:32, 39, 41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에클레시아의 용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위대한 고전 시대의 아테네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백성들의 모임을 뜻했다. 그것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결정이 국가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 외에는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한 권력의 사용은 제한이 없었다. 스스로 집행관을 선출했고 시의 정책을 좌지우지하였다.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조약을 비준하고 동맹을 결성하기도 했다. 그 모임은 장군과 기타 군대 관리자를 선출하고 군대에게 전쟁을 치르도록 위임하며 거기서 그들을 소환하기

5) 『신약성서 신학 사전』 (1987), 이병철, "교회" 항목.

6)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s. v. "ἐκκλησία" by Karl L. Schmidt, 이후로는 TDNT 라고 한다.

7) *Ibid.*, s. v. "Church" by Lothar Coenen.

도 했다. 그 모임은 모든 군사 기능의 움직임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 첫째, 그 모든 모임이 기도와 희생 제사로 시작했고 둘째 참다운 민주주의였다는 것인데... 그 모임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참가하는 것이었다.⁸⁾

이와 같은 바클레이의 글에 의하면 에클레시아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말(εκκληστοι)에 대하여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의미했다. 이렇게 볼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하나의 개별적인 공공적 단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지 어떤 공동체의 질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클레시아, 성서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εκκλησια)와는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B. 성서에서 찾은 에클레시아의 의미

1. 구약성서에서의 에클레시아

성서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마태복음 16:18절이다. 그러나 구약에도 교회는 있었다.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테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을 광야교회

8) *New Testament Wordbook*, s. v. "εκκλησια" by William Barclay.

라는 말로 표현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행 7:38)

구약성서에서 굳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구약 시대에도 교회는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약성서에서의 교회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B.C. 3세기경에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보면 에클레시아로 번역된 말씀들(카할과 에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신약성경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된⁹⁾ 히브리어 카할(קהל)¹⁰⁾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70인역에 100회 나오는데 히브리어 카할(קהל)이나 그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¹¹⁾ 그리고 카할이란 말의 본뜻은 “부르다”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말로 단순히 총회, 회집, 회중을 뜻한다. 그리고 이 낱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낱말은 악한 모의를 꾸미려고 모인 모임을 가리키며,¹²⁾ 백성들의 문제로,¹³⁾ 전쟁이나 침공을 위하여,¹⁴⁾ 포로에서 돌아오는 동행에 끼려

9) 카할과 에다는 70인역의 처음 부분에서는 다같이 공회를 의미하는 말로 번역되었으나 나중 부분에서는 카할은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되는 반면, “에다”는 쉬나고게라는 말로 번역되면서 신약성경에서 사용되는 길을 터놓았다. 이종성, 『교회론』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p. 20.

10) Millard J. Erickson, p. 28.

11) J. Y. Campbell, *Three New Testament Studies* (Leiden: Brill, 1965), p. 44.

12) 창세기 49:6; 시 26:5.

13) 열왕기상 12:2; 잠 5:14.

고,¹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적 총회에 참석하려고,¹⁶⁾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모인 모임¹⁷⁾도 가리킨다. 그리고 이 낱말은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지만,¹⁸⁾ 천사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며,¹⁹⁾ 단순히 모인 대중을 가리키기도 한다.²⁰⁾

카할(קָהָל:소집된 모임)이라는 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 단어 앞에 “주님의”, “야훼의”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²¹⁾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하여 ‘총회’로 번역되는 카할(קָהָל)은 신 31:30, 신 5:22, 민 16:3 등의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낱말인 동시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곧 ‘언약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신약성서에서의 에클레시아

신약성서에 직접적으로 쓰인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14) 민 22:4; 사 20:2.

15) 예레미야 31:8.

16) 신명기 9:10.

17) 역대하 20:5; 느 5:13.

18) 민수기 16:3; 미가 2:5.

19) 시편 89:5(ASV).

20) 창세기 28:3; 35:11.

21) 위의 책, p. 64.

특성을 잘 알려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낱말은 에크(ἐκ), 곧 “...로부터”라는 전치사와 칼레오(καλέω), 곧 “부르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어원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2회 등장(마 16:18, 18:17)하고 대부분은 바울 서신에 나온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후서에 기록한 교회라는 말(살전 1:1, 살전 2:14, 살후 1:1)은 “총회”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고 특별한 총회를 가리킬 때는 70인 역과 비슷한 한정사를 사용해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²²⁾

하지만 이 말은 곧 완전히 전문적인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말이 사용되는 곳마다 특수한 그리스도인의 총회와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이 용어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추어 다른 말과 혼동 없이 그리스도인의 총회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신약 시대에 에클레시아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 이 낱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키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성경에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일정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행 5:10-11; 고전 11:18; 갈 1:2-3) 또 사도 시대에는 당사자나 어떤 중요 인물이 개인의 방을 집회의 장소로 제공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장소를 가리켜 교회로 부른 예가 있다.(롬 16:5 ; 고전 16:19; 골 4:5; 몬 1:2) 뿐 만 아니라 일정 지역 안에 있는 여러 지교회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이 용어가 쓰이는 곳이 단 한 번 있다.(행 9:31) 그리고 이 단어는 보다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세계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임명된 직원들의 지도하에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조직된 모든

22) 김지호,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p. 30.

단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고전 10:32; 고전 11:21; 고전 12:28) 마지막으로 에클레시아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었거나 연합된 신실한 자들의 모든 단체, 즉 보편적 무형 교회를 가리킨다.(엡 1:22-23; 엡 3:10; 엡 3:21)²³⁾

마이클 그리피스(Michael Griffiths)는 이스라엘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첫째, 그들은 불러내어졌다. 이것은 구출이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르심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부름 받았다. 이 개념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현재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그들은 장래의 유업을 얻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곳은 바로 천국이다. 넷째 그들은 하나님 소유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함께 부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회중,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부르는 것이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속에는 이 모든 심오하고 풍부한 의미가 들어있다.²⁴⁾

칼빈은 교회라는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땅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를 지칭한다.²⁵⁾

23) *Ibid.*, p. 30-31.

24) *Ibid.*, p. 29.

Ⅲ. 칼빈의 생애와 교회론의 저술 배경

중세와 근세 사이(14~16세기)에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문예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예부흥운동은 중세 기독교 권위아래 구속되어 있던 인간을 재발견하게 했고 또한 성경을 보는 눈을 여러 가지로 열어주었다. 이러한 때에 전 인류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배출되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다. 이제 칼빈의 생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A. 칼빈의 생애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의 노용(Noyon)에서 태어났다. 칼빈이 태어난 노용은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피카르디(Picardy) 지방의 한 도시로서 대성당이 있는 곳이었으며, 그 대성당의 주교가 그 도시를 통치했다. 칼빈이 출생해서부터 1525년까지 노용시를 통치한 주교는 샤를 드 앙제(Charles de Hangest)였는데, 칼빈은 어려서부터 이 주교 집안의 자녀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후에 파리로 유학을 갈 때 앙제 집안의 세 자녀들과 함께 갔다.

칼빈은 1521년 열두 살 때 노용 대성당에 있는 라 제신(La

2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4.1.7. *이하 Inst.로 표기

Gesine)제단으로부터 나오는 수업의 일부를 받았다. 1527년 생 마르탱 드 마르테빌(Saint-Martin-de-Martheville)교구의 사제보의 성직록을 받았으며 후에는 그 대신에 아버지의 고향인 폰 레벡(Pont l'Evique)의 성직록을 받았다.

칼빈은 파리로 가서 마르쉬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그는 그곳에서 코르디에에게서 라틴어를 공부했으며 칼빈은 또 정통주의의 요새들 중 하나로 간주되던 몽테귀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칼빈이 몽테귀 대학에서 문학석사를 마쳤을 때 칼빈의 아버지는 칼빈에게 법학을 공부하라고 했다. 칼빈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 오를레앙(Orleans)대학교에 가서 법학을 공부했다.²⁶⁾ 그 후 칼빈은 잠시 부르지 대학교에 가서 유명한 법학자인 알차티의 강의를 들었다.

1531년 5월 26일 칼빈의 후견인 역할을 해 왔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죽은 후 칼빈은 파리로 돌아가 프랑소아 1세가 1530년 파리에 설립한 프랑스 대학(College de France)에서 희랍어 공부를 계속함과 동시에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했다.²⁷⁾

칼빈이 두 번째로 파리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학구적인 주석을 썼는데 이것은 그의 최초의 저서로서 의미 깊은 저작이었다. 이 저작은 칼빈이 휴머니스트임을 드러냈으며 그가 희랍어를 읽고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고대 문헌과 역사를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²⁸⁾

26)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7), pp.11-16.

27) *Ibid.*, p. 17.

28) 남일현, “칼빈의 주요 사상들”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

칼빈이 언제 프로테스탄트로 회심했는가에 대해서는 칼빈 연구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켜 왔다. 대체적으로 말하면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 나온 1532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이라고 보는 학자들과 그 후라고 보는 학자들로 나눌 수 있다. 근래에 와서는 칼빈의 회심이 1532년 이전에 있었으나 그의 회심은 점진적이었다고 보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²⁹⁾

칼빈이 복음주의로 회심한 것은 확실한 사건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 “갑작스런 회심”이었다고 한다. 갑자기 인생의 한창 때에 칼빈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겸손해지고 놀란 그는 새로운 과업을 준비했다.³⁰⁾ 그러나 칼빈 자신의 증언에 의하면 갑작스러운 회심은 성경에 대한 열심히 불붙고 ‘다른 공부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직후에 일어났다.

1533년 11월 1일 콕(Nicolas Cop)은 파리 대학교의 신임 총장으로 취임 연설을 했다. 칼빈이 이 연설문을 썼는가 하는 것은 계속 논쟁되어 온 문제이다. 이 사건으로 칼빈은 파리를 떠나 피신해야 했다.³¹⁾ 칼빈은 1534년 5월 4일에 노용에서 성직록을 반환했다. 한편 1534년 10월 마르쿠르 (Antoine Marcourt)가 미사를 반대하는 조문들을 붙인 사건이 있는 후

학원, 1999.

29)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7), p. 18.

30) 존 T. 맥 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 양낙홍 공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0), p. 136.

31) *Ibid.*, p. 19.

개혁자들에 대한 박해가 재개되었다. 프랑소아 1세는 황제에 대항해 독일 신교도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프랑스 신교도들에 대한 박해는 그들의 무정부주의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칼빈은 복음주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미 집필을 시작한 책을 서둘러 완성하여 프랑소아 1세에게 신교도들을 변호하는 서문을 붙여 1536년 3월 바젤에서 출판했다. 이 책이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이다.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로 인해 방랑의 길에 들어서야만 했다. 이 책의 파장이 칼빈을 개혁의 주도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파리를 떠나 제네바를 거쳐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로 가려던 칼빈은 제네바에서 빌헬름 파렐을 만나게 된다.³²⁾ 파렐은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칼빈을 찾아가 제네바에서 함께 일할 것을 강권했다. 칼빈은 파렐과의 만남을 이렇게 술회했다. “나는 가는 곳마다 내가 그 책의 저자라는 것을 감추려고 조심했다. 나는 마침내 제네바에서 기욤 파렐이 조언이나 권고가 아니라 무서운 저주로 나를 제네바에 묶어 두기까지 계속 홀로 묻혀 지내려고 했다. 나는 파렐의 저주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 위에 권능의 손을 놓은 것처럼 느꼈다.³³⁾

칼빈은 파렐의 간청을 따라 그곳에서 개혁자요 목회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이때 칼빈의 나이는 27세였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칼빈을 만

32) 김윤숙, “칼빈의 교회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신학석사학위 논문 2002.

33)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7), p. 20.

남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파렐은 말씀교육을 통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벌이기 위해서 칼빈에게 성경강해를 부탁했다. 칼빈은 1536년 8월말 산 파엘 교회에서 바울서신을 강해하기 시작했다. 칼빈은 제네바교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세 가지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첫째는 자녀들의 종교 교육이었고 둘째는 도덕적 훈련 셋째는 ‘신앙 고백’을 제정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고 시민 자치회의 결의에 의해 급진적 개혁이 좌절되게 되었다. 결국 시의회 의 가결에 의해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로 갔고 그곳에서는 루터파 사람들이 개혁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부처의 초청으로 불란서 피난민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 약 400명 정도의 교인들이 있는 그 곳이 칼빈에 의해 개혁파의 센터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칼빈은 기독교강요 2판을 내고 로마서 주석도 내었다.³⁴⁾

1540년 이델렛 드 뷔르(Idelette de Bure. ?-1549)와 결혼하여 몇 명의 자녀들을 두었으나 자녀들은 오래 살지 못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동안 칼빈을 반대한 친베른파가 베른과의 조약에서 제네바에 불리한 조약을 체결한 사건이 생겼으며, 이 결과 베른파는 약화되고 기욤파렐과 칼빈을 지지하던 소위 기욤파가 점점 우세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렵게 칼빈을 설득하여 마침내 1541년 9월 13일 칼빈은 다시 한번 제네바에 오게 되었다.

34) 김윤숙, “칼빈의 교회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신학석사학위 논문 2002.

칼빈은 제네바에 돌아오자 “교회 법령”을 작성했다. 이 법령에서는 교회의 네 직임으로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들었다. 장로는 소의회에서 12명을 선출하도록 했으며, 이들은 목사들과 함께 “당회”를 구성했다. 당회에서는 권징의 문제를 취급했는데, 권고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하고, 죄가 무거우면 시 당국에 넘겨 처벌하게 했다. 칼빈은 제네바가 기독교 공동체의 모델이 되기를 원했다. 제네바에는 많은 프랑스 난민들이 몰려왔다.

칼빈의 개혁활동은 자유주의자들과 외부인들의 영향력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본토인들로 또 다시 도전을 받기 시작했으며 칼빈의 신학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1553년 선거에서 칼빈의 반대파가 우세했다. 칼빈은 다시 한번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바로 그 때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1511-1553) 사건이 터졌다. 세르베투스는 『기독교 회복』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는 거기서 삼위일체론을 비판했으며, 유아 세례도 비판했다. 세르베투스는 그의 이단 사상 때문에 가톨릭 지역인 비엔나에서 화형 선고를 받고 투옥 중 탈출하여 제네바로 왔다. 세르베투스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고전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칼빈을 공격하기 위해 제네바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세르베투스는 제네바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세르베투스를 두고 자유주의자들과 칼빈 사이에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으며, 결국 세르베투스가 화형됨으로써 자유주의자들의 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1554년 선거에서 네 명의 집행관 모두가 칼빈파가 됨으로 교회에서는 시정부의 간섭 없이 출교할 독자적 권리를 획득했다. 1555년 5월 16

일 저녁 칼빈 반대파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 이 후 칼빈의 개혁 운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556년 제네바를 방문한 존 녹스(John Knox, ?-1572)는 “여기에 사도 시대 이후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있다. 나는 여기보다 도덕과 신앙이 향상된 곳을 보지 못했다”³⁵⁾고 말했다.

제네바의 정치는 안정되었으나 칼빈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제네바 시 전체가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지만 그의 마지막 때는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다. 그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구술하여 저작 활동을 계속했다. 병문안을 왔던 사람들이 휴식을 권고하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결국 1564년 5월 27일 토요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소원한 대로 묘비는 세우지 않았고 평토장 되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땅에 묻혔지만 그의 저작과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유학생들을 통해 그의 사상과 정신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으며 오늘날 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B. 교회론의 저술 배경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은 하나님

35) E. Stichelberger, *John Calvin*, trans. D. G. Gelzer(Cambridge: James Clark & Col. Ltd., p. 1977), p. 142.

아버지, 제2권은 성자, 제3권은 성령, 제4권은 교회에 대해 다루고 있다.³⁶⁾ 제4권에서 다루고 있는 교회론의 분량은 전체 가운데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칼빈이 교회론에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교회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토 베버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마르탱 뷔세르를 제외하고는 칼빈만큼 교회론에 관심을 둔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서 칼빈에 있어서 교회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³⁷⁾

한편 밀러(Milner)라는 학자는 기독교강요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기독교강요』에 있어서 교회론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의 신학에 있어서 중심점이 된다고까지 했다.³⁸⁾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론은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강요』는 개혁파 신앙을 옹호하기 위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강요의 사상에는 항상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다. 그는 로마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앙의 보루(堡壘)에 거짓 것이 끼어 들고, 필수적인 교리의 요강(要綱)이 무너지고, 성례의 바른 시행이 파괴되면 그 즉시 교회의 죽음이

36)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7), p. 59.

37)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론』 김영재 역 (서울:풍만출판사, 1985), p. 44.

38) *Ibid.*, p. 58.

반드시 이어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유지시켜 주는 유일한 것인 바로 그 신앙의 요강이 죽어 버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만일 참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면(딤후전 3:15), 거짓말과 허위가 지배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교황제 아래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정도나 거기에 남아 있을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의 사역 대신 거짓말이 혼합되어 있는 사악한 통치가 지배하고 있어서 말씀의 순결한 빛을 부분적으로는 깨뜨리며, 부분적으로는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성찬을 대신하여 가장 추악한 신성 모독이 도입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온갖 다양한 미신거리들로 훼손되었다. 교리-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설 수 없는-가 전적으로 파문혀버리고 추방되었고, 공적인 집회들이 우상숭배와 불경의 학교가 되어 버렸다.³⁹⁾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칼빈의 기본적인 교회관을 알 수 있다. 그는 부패한 로마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와 교통을 중심으로한 교회관을 수립하였으며 이것을 혼란시키며 불순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 하나 개혁해 나아갔던 것이다.

그는 질서와 전통을 사랑하였다. 그는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를 변호하였으며, 어떤 혁명적인 것에 열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형성되기를 원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칼빈의 교회론이 저술되어진 것이다.⁴⁰⁾

39) Inst. 4.2,1-2.

40) 남일현, “칼빈의 주요 사상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석사학위

IV. 교회의 본질

우리는 앞에서 교회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와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살펴보았다. 루터는 교회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곧 성도들의 모임으로 정의했다. 이 루터의 정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신교 교회론의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 오늘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⁴¹⁾ 가톨릭 신학자 한스 쾅은 그의 유명한 “교회론”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했다. 즉 교회가 제도라기 보다는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⁴²⁾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카톨릭교회 밖에서의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했고 교회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칼빈이 이미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교회라는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땅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를 지칭한다.⁴³⁾

이제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본질(本質, Wesen)⁴⁴⁾

논문, 1999.

41)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장신대출판부,1997), p. 13.

42) *Ibid.*, p. 110.

43) Inst. 4.1.7

44) 사물이 일정한 사물이기 위해서 다른 사물과는 달리 그 사물을 성립시키고 그 사물에만 내재하는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Naver 백과사전.

에 대하여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필연성에 대하여 서두에 언급하였다.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게다가 기질이 변덕스럽기까지하여-우리 속에서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움의 수단들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시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흥왕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이 보배를 교회 안에 간직하셨다. 그는 “목사와 교사”(엡 4:11)를 세우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으며, 마지막으로 믿음의 거룩한 일치를 위하여, 또한 올바른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례를 제정하셨으니, 이를 체험한 우리들이 느끼기에 믿음을 북돋고 강건케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⁴⁵⁾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A.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칼빈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그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고 했다. 교회는 거듭난 신자들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돌보는 기능을 하기 때

45) Inst. 4.1.1.

문에 칼빈은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 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기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⁴⁶⁾

그는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서 잉태하고, 낳고, 가슴의 젖으로 양육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죽을 육체를 벗고 천사들과 같이 되기까지(마 22:30)보살핌과 인도 아래 우리를 지키지 않는 한, 우리가 생명 속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으며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평생토록 교회라는 학교의 학생들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인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죄 사함이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으며⁴⁷⁾ 나아가서는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⁴⁸⁾

칼빈이 이와 같이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한 것은 키프리누스와 어거스틴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키프리아누스는 “당신이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고 했으며⁴⁹⁾ 어거스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역이요 그분의 신비스러운 몸이요 그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⁵⁰⁾고 했다.

46) Inst. 4.1.1.

47) Inst. 4.1.4.

48) Inst. 4.1.10.

49)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7.), p. 174. 재인용.

50) J.N.D.Kelly, 『고대기독교교리사』, 김광식 역, (서울:한글, 1993), p.

칼빈의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이다.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은 교회를 중심으로 선포되고 전파되어져 나갔다. 사도들은 교회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르쳤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넓게 퍼져나갔고 구원받는 백성들은 늘어갔다(사도행전 2:42-47).

교회 안에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으며 장성한 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전 3: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 13:11)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되는 것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한 것이다.

B.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에 더하여 칼빈이 이해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또 하나의 중

요한 개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다.

교회를 가리켜 “공교회”(catholic church), 혹은 “보편 교회”(universal church)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여러 갈래로 찢어지지 않으시는 이상 두 개나 세 개의 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인데(참조, 고전 1:13),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택한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어(참조, 엡 1:22-23) 한 머리를 의지하며, 또한 한 몸으로 함께 자라나며, 한 몸의 각 지체들로서(롬 12:5; 고전 10:17; 12:12, 27)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참조, 엡 4:16).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로 만들어진다. 이는 이들이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그리고 한 하나님님의 성령 가운데서 함께 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일한 영생의 기업을 향하여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엡 5:30).⁵¹⁾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먼저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다(고전 12:27). 즉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고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엡 1:23)와 골로새서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머리에

51) Inst. 4.1.2.

붙은 몸(골 2:19)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이러한 바울의 사상을 근거로 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됨을 주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어머니로서의 교회’보다도 더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 한 머리를 의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달린 지체들 같이 서로 단단히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도의 교통으로서 교회는 몸이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며 각 지체들은 그 특성과 기능에 있어서 모두 다르고 그들이 받은 은사에 있어서도 각기 다르다. 즉 교회의 일치성을 말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세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와 같이 성도의 긴밀한 교통 즉 교제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교회의 지체들 사이에서 형제로서의 상호 관계와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파괴된다면 이것은 단지 일부분의 손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가장 큰 손상을 받는 것이 된다.⁵²⁾

C.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칼빈은 ‘선택’을 교회의 기초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내적인 부르심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며(딤후 2:19),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치심으로 품안에 안으신다(엡1:13)고 했다. 왜냐하면 적은 수의 사람이 대중 속에 숨겨지고 몇 알의 밀알이 쭉정이 더미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기 교회를 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은밀한 선택”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거대한 무리 속에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숫자가 감추어져 있고, 거 더미 속에 그저 몇 알의 알곡이 숨겨져 있는 현실이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교회의 기초가 바로 그의 은밀하신 택하심에 있기 때문이다.”⁵³⁾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교회론의 테두리 안에서 말함으로 칼빈은 선택과 교회를 연결 지었다. 그는 교회론을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딤후2:19)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였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의 가시적인 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단체 곧 피택자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⁵⁴⁾

52)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3), p. 188.

53) Inst. 4.1.2.

54) 빌헬름 니이젤, 앞의 책, p. 188.

칼빈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진술은 사람들이 자기를 찬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체의 행동을 일소시키는 것이다. 이어서 칼빈은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연합된 교회에 확실한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선택받은 무리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다고 하였다.⁵⁵⁾

이 말은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에게 확실히 속한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교회란 우리의 죄와 죄책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붙드는 곳이다라는 뜻이다.⁵⁶⁾

그래서 니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 구원이 상실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사변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이러한 신의 선택에 대한 지적은 자기의 종교적 소유물에 자족하는 자들이나 교회의 역사적 성립과 훌륭한 형태나 완결성에 안주하는 이들에게는 예리한 칼처럼 모든 것에 대하여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를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한 지체라는 자각을 가지는 사람은 은총의 선택 교리에

55) Inst. 4.1.2.

56) 필립 홀트롭, 이길상 역, 『기독교강요연구핸드북』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p. 330.

의해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도리어 믿음의 확신이 보장된다.”⁵⁷⁾

칼빈은 교회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 교리를 통해 위로를 얻고자 했는데, 그의 이러한 바램은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마귀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하고 하나님의 원수들도 그에 못지 않은 잔인한 분노로 격분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시킬 수는 없으며 그리스도의 피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지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어느 정도 유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그의 내적 부르심을 생각해야한다. 이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며(딤후 2:19)’ 바울의 말과 같이 그들에게 모두 인을 치셨기 때문이다.(엡 1:13) 그들은 하나님의 휘장을 달고 있어서 버림받은 자들과 구별된다.⁵⁸⁾

칼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의 구체적인 유익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일에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를 믿은 근거는 자기가 교회의 지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서 있으며 따라서 온 세계조직이 무너지더라도 교회는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가 없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존립하며, 하

57) 빌헬름 니이젤, 앞의 책, p. 189.

58) Inst. 4.1.2.

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같이 동요하거나 파멸될 수 없다. 둘째, 교회는 영원불변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체가 찢기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신자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⁵⁹⁾

이처럼 선택교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 그러나 교회의 통일성을 생각하지 않는 한 선택만 생각하는 것은 또한 불충분하다.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 그리스도는 그들 모두의 머시며 그들은 자라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선민은 모두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한 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엡 1:22이하) 서로 연합되고 밀착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들은 참된 하나가 되어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한 성령안에서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동일한 영생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엡 5:30)⁶⁰⁾

이렇게 칼빈은 교회와 선택 교리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택 교리는 인간적인 것을 모두 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선택교리는 교회로부터 모든 종류의 방심과 자아능력을 빼앗으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완수하도록 교회를 강화해 준다. 또한 선택 교리는 교회로부터 모든 종류의 거짓된 지주들을 빼앗음으로 교회로 하여금 세상권세의 모든 공격에 대하

59) Inst. 4.1.3.

60) Inst. 4.1.2.

여 무적의 대결을 하게 한다. 칼빈의 교회론에 따르면 선택교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봉사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평안과 확신과 자극을 주는 것이다.

D.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칼빈은 교회를 크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이 두 가지개념으로 나누어 생각을 했다. 가시적 교회란 땅위에 흠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를 지칭하며 이들은 세례를 통하여 믿음에 속한 생활을 시작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참된 교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며 또한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사역을 보존하는 무리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가시적 교회는 불완전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저 이름과 외양뿐인 많은 외식자들이 뒤섞여 있다. 야심을 가진 자들과, 탐욕스러운 자들, 쟁투를 일삼는 자들, 악담하는 자들, 그리고 생활이 매우 부정한 자들이 거기에 많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일시적으로 용납되는데, 이는 유능한 재판 기관을 통해서도 이들의 죄상을 책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요, 혹은 철저한 권징이 언제나 합당하게 정상적으로 시행되지를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⁶¹⁾

또 불가시적 교회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불가시적 교회란 오직 양자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 자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⁶²⁾이다. 이것은 교회라는 말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불가시적 교회의 구성원은 태어나지 않았든 이미 죽었든 아니면 현재 살고 있든지 간에 선택받은 무리의 총수를 의미한다. 그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인다고 했다.⁶³⁾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쓰러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는데 칼빈은 이에 대한 예증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가 한때 안보일 정도로 훼파되었던 사실과 구약시대의 엘리야가 자기 홀로 남은 것같이 낙담하였던 사실을 들고 있다.⁶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압박 당할 때에도 교회를 보호하셨으며 엘리야가 낙담할 때에도 칠 천명의 성도를 남겨두셨던 것이다.⁶⁵⁾ 이렇듯이 칼빈은 초기에 비교적 가시적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후일 스트라스부르그 목회와 제2차 제네바기간을 통하여 또한 부처(M. Buccer)와 접촉하면서 가시적 교회도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칼빈은 불가시적 교회와 함께 가시적 교회를 말하게 되었다.⁶⁶⁾

61) Inst. 4.1.7.

62) Inst. 4.1.7.

63) Inst. 4.1.7.

64) Inst. 서문. 『프란시스 왕께 드리는 헌사』.

65) Ibid.

66) F. Wendel, p. 294.

한편, 칼빈에 있어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는 플라톤적 이원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불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예정 교리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눈에만 보일 뿐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뜻에서 불가시적이다.⁶⁷⁾ 칼빈이 이렇게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은 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가시적인 교회에 대하여 불가시적 교회를 비판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나아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회중으로서의 교회라는 교회의 참된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서이다. 또 여기서 불가시적 교회가 강조된다고 해서 가시적 교회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⁶⁸⁾ 우리는 이 두 교회의 구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가시적 교회의 지체들과 더불어 교제를 가져야 하고 이 교제를 존중하면서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⁶⁹⁾

하나님만이 교회의 궁극적이며 본래적인 판단기준이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 것’이다(딤후 2:19). 이렇듯이 칼빈은 선택의 관점에서 교회론을 세웠는데 이것은 루터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⁷⁰⁾ 즉 우리의 구원은 확고 부동한 초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기관이 무너져도 교회는 튼튼히 설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

67) 루이스 벨콕, 신복윤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6).

68) Ibid.

69) Inst. 4.1.7.

70) 오토베버,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반석문화사, 1993), p.

에 근거하여 있으며 그의 영원하신 섭리는 약화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⁷¹⁾

칼빈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실제로 구별하는 일에 주저하면서 이 두 교회를 중첩하는 두 개의 동심원으로 설명한다. 그의 가시적, 불가시적 교회에 관한 논술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종교개혁적 이상의 실현의지인 동시에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할 가시적 교회의 실제적 모습에 대한 관심이다.⁷²⁾

칼빈은 결론적으로 불가시적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 믿어야 함은 물론,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불리는 가시적인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그와 함께 교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⁷³⁾

V. 교회의 기능

칼빈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교회의 기능으로는 말씀선포와 성례전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전해지

71) Inst. 4.1.7.

72) G.S.M Walker, "Calvin and the Church"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4), p. 219.

73) Inst. 4.1.7.

고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성례가 시행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될 것이라 했다. 즉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 말씀 사역이 있고 또 그 사역을 공경하며,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한다면, 그 무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교회로 인정받아 마땅한 것이라 했다.⁷⁴⁾

A. 말씀 선포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말씀 선포인 것이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던 일이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행 5:41-42).”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그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교회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예를 들면서 교회 안에 도덕적인 부패와 교리적인 부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요 성도들의 교제로 인정하고 선포했다고 바울의 말씀을 인용했다(고전 1:2).

74) Inst. 4.1.9.

말씀선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인데 그는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4:10-13절의 말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한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오로지 교회의 교육을 통하여 장성한 자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일들이 목사들에게 맡겨졌다고 했다.⁷⁵⁾

또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사야 59:2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를 근거로 할 때 교회의 손을 통하여 신적으로 베풀어지는 신령한 양식을 물리치는 자들은 기갈과 굶주림으로 죽어 마땅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대의 백성들을 천사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땅에서 교사들을 일으키사 그들로 하여금 천사들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인간적인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이중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했다.⁷⁶⁾

75) Inst. 4.1.5.

또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말씀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단지 자기들의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과 혀를 친히 거룩하게 구별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하셨으며 이것이야말로 특권이라고 했다.⁷⁷⁾

또 칼빈은 가르침에 있어서 공적인 예배보다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없음을 이야기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한 걸음씩 위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B. 성례전

칼빈은 성례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유사하게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례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성례를 간단하고도 적절히 정의하자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탱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신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하나의 외형적인 표지(sign)이며, 또한 우리편에서는 주와 그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를 향한 우리의 경건을 인증하는 표지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간단히 정의하자면, 우리에게 향하신 신

76) Inst. 4.1.5.

77) Inst. 4.1.5.

적 은혜에 대한 증거를 외형적인 증표로써 확증하는 것이요, 그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⁸⁾

이와 같은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의미 있는 교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표로서 성례에 임하는 것이다. 칼빈은 성례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에 성례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성례는 반드시 그 앞에 선행하는 약속이 있으며, 성례가 일종의 부록처럼 거기에 붙어 있어서 약속 그 자체를 확인하고 인치며, 그리하여 그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해 주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무지와 우둔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례가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확증한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준다 하겠다.⁷⁹⁾

이러한 성례가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가냘프고 연약하므로 사방에서 온갖 수단들을 통해서 받쳐지고 지탱되지 않으면 흔들리고 동요하며 비틀거리고 결국 넘어지고 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칼빈은 성

78) Inst. 4.14.1.

79) Inst. 4.14.3.

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다.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더욱 확실하게 믿도록 만들어 주는 행위이다. 우리가 육체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어서, 마치 초등 교사가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듯이 그렇게 우리의 무딘 능력에 맞추어서 우리를 교훈하며 이끌어 주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를 가리켜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 부르는데, 이는 성례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 눈앞에 놓고 형상화하여 회화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기 때문인 것이다.⁸⁰⁾

1. 세례

칼빈은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문의 표시라 하였고 그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며, 둘째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고백⁸¹⁾을 돕기 위한 것이다.⁸²⁾

이러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세례는 우리의 믿음에 여러 가지로 기여하는데 이에 대하여 칼빈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을 했다. 첫째는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요 증거이며 둘째는 그리스

80) Inst. 4.14.6.

81)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 신앙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동의한다는 것을 증거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Inst. 4.14.13.

82) Inst. 4.14.1.

도 안에서 새생명을 얻은 표징이며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하여 그의 모든 복들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증거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세례를 받은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른 성례를 통해서 그것을 속할 어떤 새로운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언제 세례를 받든지, 우리의 온 생애 전체가 단 번에 깨끗이 씻음 받고 정결케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⁸³⁾

칼빈은 세례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세례를 어떻게 사용하며 받을 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세례는 그 주인이신 주님 자신의 손으로 받는 것처럼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죄에 대한 기억까지도 도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와의 연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단언하건대, 주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물에 담가 깨끗이 씻는 것 만큼이나 참되고 확실하게 우리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신다.⁸⁴⁾

83) Inst. 4.14.3.

84) Inst. 4.14.14.

또 세례는 다음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만일 성례를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의 손을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오직 그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면,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성례의 위엄에 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⁸⁵⁾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들이 하나님과 모든 경건에 대하여 무지하고 심지어 경멸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으로써 자기들의 무지나 신성모독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이나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다.⁸⁶⁾

칼빈은 세례의 능력과 가치와 효용성에 대하여 논한 후에 세례를 베풀에 있어서는 사사로이 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라고 명하지 않았고 지정하신 사도들에게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⁸⁷⁾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평신도가 세례를 베푸는 일에 대하여 그것은 전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거니와 혹은 죄를 지어도 아주 가벼운 죄를 짓는 정

85) Inst. 4.14.16.

86) Inst. 4.14.16

87) Inst. 4.15.20.

도일 것이다⁸⁸⁾라고 했다.

칼빈은 여자가 세례를 베푸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어거스틴이나 터틀리안의 견해를 들었다. “그는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야 하며 가르치거나 세례를 베풀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직무를 자기 것으로 주장해서도 안 되며, 사제의 직분은 더더욱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⁸⁹⁾

2. 성찬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례라는 표시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받아들여졌음을 확증한다. 일단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받아들인 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 우리를 양육한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 준 표시가 바로 성찬이다.⁹⁰⁾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그의 권속으로 받아들이신 다음, 우리를 종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들로써 대하시면서, 지극히 자비하시고 사랑이 깊으신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 인생의 여정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를 지탱시키신다.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베풀어주실 것을 맹세로써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셨다.⁹¹⁾

88) Inst. 4.15.20.

89) Inst. 4.15.21.

90)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7), p. 231.

91) Inst. 4.17.1.

이 성찬의 표징은 떡과 포도주이며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경건한 자들의 은밀한 연합의 신비는 본질상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 가장 합당하도록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그 상징과 형상을 보여 주신 것이라고 했다.⁹²⁾ 그리고 이 신비한 축복의 목적은 주님의 몸이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셔서 이제 우리가 그 몸을 양식으로 삼으며, 또한 그렇게 양식으로 삼음으로써 그 유일무이한 희생의 역사함을 우리 속에서 느낀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가 피를 흘리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음료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고자 하는 것(고전 11:24; 참조. 마 26:26; 막 14:22; 눅 22:19)⁹³⁾이라고 했다.

칼빈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성례의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며 음료로서 우리를 먹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약속을 통하여 증거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과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임을 선언하시는데(요 6:48, 50), 바로 그 약속을 인치고 확증하는 것이 성례의 주요 기능인 것이다.⁹⁴⁾

물론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된 것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

92) Inst. 4.17.1.

93) Inst. 4.17.1.

94) Inst. 4.17.4.

이며,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분은 성령이다. 그러므로 성찬은 상징이지 실체가 아니다.⁹⁵⁾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상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체도 주는 것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허한 상징을 준다고 감히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⁹⁶⁾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을 때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된 것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보증이 된다.⁹⁷⁾

이러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의 살이 우리의 양식이며 그의 피가 우리의 음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⁹⁸⁾

복음을 전하는 일과 유사하게 성례도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성례들에 대하여 명확한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그것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정되었으며 현재의 용도는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⁹⁹⁾

C. 권징

칼빈은 교회에 있어 권징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어떠한 사회도, 아무리 적은 가족이라도 권징이 없이는 적절한 상태를 유지

95) Inst. 4.17.10.

96) Inst. 4.17.2.

97) Inst. 4.17.2.

98) Inst. 4.17.4.

99) Inst. 4.14.1.

할 수가 없으니 가능한 한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할 교회로서는 더욱더 권징이 필요하다. 그리고 권징은 몸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자리를 지키도록 해 주는 근육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¹⁰⁰⁾

권징을 제거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권징의 회복을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교회를 와해시키고 있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리고 권징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억제하고 누그러뜨리는 고삐와도 같으며, 또한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박차와도 같고 때로는 좀 더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유하고도 부드럽게 채찍질하는 아버지의 채찍과도 같은 것이다.¹⁰¹⁾

권징의 절차에 있어서는 성경을 근거로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권면을 한 다음 교회의 법정 앞 즉 장로회의 앞에서 그를 소환하고 엄중히 권면하여 그 사람이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경우에는 굴복하고 순종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악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교회를 멸시하는 자로 여겨서 신자의 교제에서 제거시키라고 했다(마 18:15).

권징의 목적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더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존귀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선인들이 악인들과 늘상 어

100) Inst. 4.12.1.

101) Inst. 4.12.1.

울림으로써 부패하는 일이 흔히 있거니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5장을 인용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안에 음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고 책망을 하면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5:6) 그만큼 교회안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권징의 목적이 선인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있다고 했다.

세 번째 목적은 자기들의 부패한 모습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거기에 압도되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부드러운 대접을 받을 때에 고집을 부리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행에 대하여 징계의 채찍을 받으면 마음에 일깨움을 받는 유익을 얻는 것이다라고 했다. 데살로니가후서 3:14 과 고린도전서 5:5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일시적인 정죄의 상태에 내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였다는 의미이다.

권징의 시행방법에 대하여서는 공적인 죄도 있고 사적이고 은밀한 죄도 있는데 공적인 죄에 대하여는 그러한 죄가 드러나면 교회는 죄인을 소환하여 그의 과실에 따라 그를 교정함으로써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했고, 사적인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절차에 따라서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릴 때에 비로소 교회가 개입하여 문제를 처리한다.

경미한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방법대신에 부드러운 말-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말로- 책망하는 것만으로 족하며 파렴치한 범죄의 경우에는 좀 더 엄한 치유책으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해야한다. 바울은 음행을 일삼은 고린도 사람을 말로만 꾸짖지 않고 교회에서 내쫓았고, 또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둔 데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였다.

권징의 대상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야 하며 권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엄중하되 “온유한 심령”(갈 6:1)으로 하는 것이 교회에 합당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징계를 받는 사람이 근심에 압도당하지 않고 치유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유를 위한 권징이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¹⁰²⁾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그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음에 내어주지 말고, 오히려 주의 법에 따라서 각 사람의 행위들의 성격만을 판단하도록 하자.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의 근거로 삼도록 하자. 하나님의 권세를 제한시키고 그의 긍휼하심을 법으로 묶어 두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범죄를 판단하는 데에서 더 많은 재량권을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극악한 사람들을 최고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고, 이질적인 자들을 택한 백성에게 접붙이시며, 외인을 양자 삼으셔서 교회 안으로 들이시는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사람의 생각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경솔함을 제어하신다.¹⁰³⁾

102) Inst. 4.12.8.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살후 3:15) 사
사로운 죄와 공적인 죄들을 징계함에 있어서 이러한 온유함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권징으로부터 살육으로 전락하고 마는 위험에 처하
게 될 것이다.¹⁰⁴⁾

VI. 결 론

지금까지 교회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
보았다.

성서에서 그 의미를 찾은 대로 교회란 단순히 어떤 건물을 의미하
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칼빈도 교회란 땅위에 흠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자
들의 무리를 지칭하며 나아가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그분의 택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정리했다.¹⁰⁵⁾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논하며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선택된 자들
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말
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103) Inst. 4.12.9.

104) Inst. 4.12.10.

105) Inst. 4.1.7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성도들은 그 몸
에 예속된 지체들로서 일치와 연합을 힘쓰며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본질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

칼빈은 교회의 표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으로 말씀선포와
성례전을 이야기했다. 말씀 선포에 있어서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것처럼 설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것
은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귀담아 들어야할 이야기라
생각되어진다. 성례전에 있어서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함을 강조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능인 권징을 강조했다는데 이 권징은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교회의 근육과 같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사
랑의 원리에 따라야 함을 이야기했다.

칼빈은 이와 같은 교회의 참 모습을 찾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혼
신의 힘을 다했다. 베자의 말처럼 그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 칼빈은 회심한 후로 로마 카톨릭과 이단의 세력들 속에서 생명을
건 투쟁을 계속 하였다.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알고 있었으므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
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
같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생애를 마감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적
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외형적인 것만을 강조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생각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로서 교회를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에 교회는 상처를 입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칼빈의 주장을 깊이 있게 새기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림같이 희생과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존 칼빈.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강요』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신대출판부, 1997.
-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서울: 이레서원, 2001.
- 김지호.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신대출판부, 1984.
-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론』 김영재 역 서울: 품만출판사, 1985.
- 오토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3.
- 루이스 벨콕. 『기독교 교리사』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6.
- 나이젤.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빌헬름필립 홀트롭. 『기독교강요연구핸드북』 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J.N.D.Kelly. 『고대기독교교리사』 김광식 역 서울: 한글, 1993.
- 존 T. 맥 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 양낙홍 공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0.
- Michael Griffiths.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 권영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2.
- David Watson.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1.
- 이병철. 『신약성서 신학 사전』, (1987), “교회” 항목.

2. 논문

- 고준행. “칼빈의 교회론에 관한 연구”, 미간행 신학석사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원, 1993.
- 김윤숙. “칼빈의 교회론” 신학석사학위 논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2002.
- 김종순. “John Calvin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새로운 접근” 신학석사학위 논문,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 남일현. “칼빈의 주요 사상들”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 장윤석. “칼빈의 교회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1.
- 황재우. “John Calvin과 Karl Barth의 교회론 비교연구” 신학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 1994.